승속 · 종교 · 나이 떠난 '무차' 정신 알리다

키워드로 본 상월결사

상월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결사란 평가를 받고 있다. 출재가가 함께 하는 사부대중결사였고 세속을 멀리한 산중이 아니라 도심, 그리고 세간의 한 중심에서 생겨난 야단법석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 상월결사를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 조명해 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판사판 '한판' 결사

상월결사는 불교 내부적으로는 유례없는 사판 스님들과 이판 스님들의 이른바 '한판' 결사로 진행됐다.

먼저 상월선원 천막결사에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 무연, 호산, 재현, 심우, 진각, 도림, 인산 스님 등 9명의 대중 스님들이 무문관 정진에 들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사판 스님인 자승 스님이 제방선원의 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는 것 만으로도 불교계에서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총도감 혜일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천막결사 당시에 외호대중으로 참여했다. 이는 그동안 산중 수행으로만 평가받던 안거수행을 일선 사찰행정을 담당하는 스님들이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포교전법으로도 이어지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태화산 예비순례와 만행결사 자비순례로도 이어졌다. 전국의 스님들이 사판 이판을 불문하고 신청을 했으며 많은 지원으로 이른바 인도 만행결사를 앞둔 '선발' 성격을 띠기도 했다. 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사판승으로 젊어서 지녔던 이판승으로서의 꿈을 이루는 계기였다고도 했다.

사부대중 '무차' 결사

태화산 예비순례와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정진하는 사부대중의 '무차' 결사로 이어졌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무문관 옆 일일체험 공간에서 재가불자들이 함께 수행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주는 스님들의 정진이었다. 하지만 태화산 순례와 자비순례에서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똑같이 풍찬노숙하며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펼쳐졌다. 비록 복장과 모습은 달랐지만 순례단에서 대우는 같았으며, 모두가 하나의 수행자였다. 가톨릭 신자부터 70세가 넘는 고령자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까지 한마음으로 순례에 동참했다. 길을 걷다 힘들 때면 재가불자들은 앞선 스님들을 보고 힘을 내고, 스님들은 또 재가불자들의 모습을 보며 힘을 냈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태화산 순례와 추위 속에서 진행된 자비순례 모두 승속과 나이, 종교까지도 떠난 차별없는 대중의 '한마음'이 있었기에 모두가 순례를 성료할 수 있었다.



21일간 동고동락한 순례단이 봉은사에서 자비순례 회향을 앞두고 찍은 사진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20여일간 착용한 마스크를 잠시 벗은 대중들의 얼굴에 환희심이 비친다. 상월결사에 함께 참여한 모든 대중들은 차별없는 도반으로 결사정신의 발현을 위해 매진했다.

자원봉사 '함께' 결사

흔히들 결사라고 하면 결사에 참여한 이들만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상월결사는 결사 외호대중의 역할과 정진 또한 지속적으로 주목받은 결사다. 천막결사 당시 추운 겨울 스님들의 정진을 돕고 야단법석을 열어 신심증장의 기회를 제공한 외호대중은 태화산 예비순례와 자비순례에서 지원단으로 정식 구성돼 활동했다. 박기련 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운영팀(팀장 이상종)과 상황팀(팀장 윤승헌), 자원봉사 · 공양팀(팀장 장영욱), 의료팀(팀장 김명숙) 등 총 4개 팀으로 나뉘었고, 순례단의 안전과 순례 관련 전반적인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맡았다. 비록 순례에 직접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뒷바라지를 통해 순례 동참보다 더한 공덕을 쌓았다. 이러한 외호대중의 역할은 순례 과정에서 십시일반 순례를 지원한 이들로 확장됐다. 공양물을 보내온 일선사찰부터 길안내 등 노력봉사로 결사에 동참한 포교사단과 경찰불자회 등의 모습은 단순히 수행만이 결사 참여가 아니란 것을 보여줬다.

좌선 · 행선 '행주좌와' 결사

상월결사는 앉아서 참구하는 선수행이 걷고 자고 먹는 등 행주좌와 모든 순간으로 전환되는 결사임을 알리는 계기였다. 그동안 수행정진이라고 하면 선방에서의 화두참구라는 인식은 상월결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알게 했다.

결사에 참여한 순례대중은 걸으며 염불하고, 누워서 화두를 참구하며, 저잣거리에 나서 만행을, 삶의 현장을 돌아보며 자비실천을 행했다.

특히 자비순례 때는 순례단의 손에는 모두 단주가 들려있었다.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씩 단주알을 돌리며 각자 생각한 화두에 빠져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천막결사 이후 아홉 스님들은 코로나 기간 급감한 헌혈 상황을 감안해 헌혈에 동참하고, 회향에 답도한 보시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복지관에 기부해 결사에서 수행정진과 자비실천이 둘이 아님을 직접 보였다.

유튜브 '디지털' 결사

21세기에 펼쳐지는 결사답게 상월결사는 포교와 전법에까지 영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이다. 유튜브 채널인 '상월선원'은 실시간으로 순례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창구가 됐다.

홍보담당인 정오 스님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가 하면 각 언론사들의 다큐 등 유튜브 영상도 상월선원 채널에서 공유됐다. 천막결사 당시 300여명 수준이었던 상월선원 유튜브 채널은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로 3000명이 넘는 구독자와 콘텐츠 당 2000~1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자랑했다.

여기에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영화 '아홉스님'으로도 제작돼 5월 27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국내 유수언론 또한 상월결사의 여러 면모를 보도하고 관심을 보였다. 디지털, 미디어 결사는 스님들의 수행정진에 의한 감동이 그 현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도 확장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結社 새 패러다임 제시…화두 던졌다"

불교지성들이 본 상월결사

상월결사가 제시하고 실천한 새로운 결사방식은 매순간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한국불교에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됐다. 이에 지난 1년 간 불교학자 등 지성들이 저마다 조명한 상월선원 결사의 의미 가운데 눈에 띄는 발언들을 정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 한 획 긋는 사건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상월선원은 탈종교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이 시대 불교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상월선원 천막결사에는 고려시대 지눌의 수선사 결사 정신이 온축돼 있으며, 만행결사 역시 붓다가 강조한 순례의 정신과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한국불교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불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승려의 문제일 수 있다"며 "지눌의 개창 이후 약 170여년 만에 송광사는 동방제일도량이라는 최고 존칭으로 불리게 됐다. 이는 지눌이 추구한 수행과 청정성의 회복이 고려불교에 강력한 족적을 남겼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님은 "천막결사라는 최소를 통한 청정과 무문관이라는 치열한 수행은 지눌과 지공을 결합하는 최상의 가치를 도심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현대불교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승가 · 재가 상호보완구조 제시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상월결사에 대해 "'앉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로,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로, 소극적불교에서 적극적불교로 변화시켰다"며 "'미래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라는 상월결사의 신념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불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황 교수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대해 "승가와 재가가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국불교 재가자는 큰 사찰의 선원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출가자는 수행을 위해 안거 기간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으나,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이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숲속에서 고립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모두가 함께하며 수행하는 야단법석을 지향한 것 자체가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며,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수행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지향하는 밝고 건강한 수행문화"라고 평가했다.

법고창신의 결사운동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상월결사가 회주 자승 스님이 지난 2011년 총무원장 재직 당시 시행했던 '자성과 쇄신결사 운동'에서부터 태동됐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자성과 쇄신결사는 당시 불교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상월결사 역시 한국불교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고착화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 교수는 "상월결사가 역대 전통결사와 같은 배경을 하지만 그 방법을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며 "이는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의 결사운동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평화 · 통일순례로 확장 제안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월결사의 확장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결사가 승가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상월결사는 대중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는 출 · 재가가 함께하는 결사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향후 통일 · 평화순례로 확장되는 등 현실을 반영해 신계사와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를 순례하는 금강산 만행결사와 고성서 파주까지 250km에 이르는 DMZ평화순례를 제안했다.

수행문화 흐름 바꾼 계기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상월선원은 한국불교 흐름을 바꾸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는 부처님 안거이고, 만행결사는 안거를 마치고 수행자들이 유행하며 전법하고 수행하는 모습에 기인한다"며 "나아가 상월결사는 4차산업혁명시대 불교가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할지를 계속 고민하게 해 실질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법순례자 혜초 스님 연상

이병두 前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은 "상월선원 결사는 외부를 탓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원력을 낸 일대 사건"이라며 "불교의 흐름을 바꾸려는 이번 결사가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자기혁명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태우기도 세상을 밝히기도 한다"고 강조한 이 前 종무관은 "자비순례의 작은 불씨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출발할 때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500km의 대장정을 마치면 대다수가 같은 생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며 "동참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도반과 문중, 종단, 한국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해본다"고 강조했다.

사부대중 함께한 '진짜 결사'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이번 만행결사를 지켜보며 개인적으로 〈왕오천축국전〉을 쓴 구법승 혜초 스님과 〈삼국유사〉를 집필자 일연 스님을 떠올렸다. 두 스님 모두 구법 순례를 통해 세상을 접했고 이를 저서로 기술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불교중흥, 국난극복을 위한 자비순례도 일종의 구법행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 변화 모여 한국불교로 확산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결사(結社)는 '동일한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성취하는 데 동참하는 것' 혹은 '동일한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 모인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말한다"며 "그렇게 보면 불교 집안의 결사에 대중결사가 아닌 것이 또 어디에 있으며, 대중이 동참하지 않고서 결사의 원력을 성취한 경우 또한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상월선원은 그야말로 사부대중 모두가 진심으로 함께했던 결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석 교수는 "상월결사는 '나는 불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했으며, 이 같은 고민들은 개인의 발심과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상월결사를 바라보는 불자들이 이를 느끼고 변화한다면 궁극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